

교회소식

로템학교에서 보내는 감사편지



추수감사절 쌀나눔 행사에서 주님의교회 성도들이 모은 쌀을 받고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다. 로템청소년 학교는 충북제천에 있는 청소년 선도 학교이다. 이 곳은 21명의 청소년들이 사회 적응 교육을 받고 있다.

주안에서 평안 하신지요. 로템학교도 김장도 마치고 겨울준비가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늘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주님의 교회에서 귀한 쌀을 보내 주셨습니다. 뜻밖의 선물을 받고 겨울을 지나기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11월은 그동안 지내던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와 조금은 어수선 합니다. 야생마 처럼 살던 아이들과 옮겨올 훈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한달 남은 2008년 주안에서 보람되게 보내시고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위에 늘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교회 성도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로템청소년학교 감대북 원장 드림

30CUP 자원봉사자 모집



30CUP 셀연합 예배시 유아들을 돌볼 봉사자들을 모집한다.

믿음 속에서 자녀를 키우며 하나님을 만나는 사역에 많은 동참하기를 소망한다. 문의. 장혜정 권사 010.8415.5071

중보기도 사역팀 월례회



12월4일(목) 지하유치부실에서 중보기도팀 월례회가 열렸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중이라 더욱 많은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참석을 하였다.

참석자들은 릴레이 기도를 통해 주님의 얼굴을 항상 뵈수 있는 은혜를 누리

록 해 주심에 감사하였다. 기도를 할 수 있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 같다 한다.

신영숙 팀장은 내년 2월부터 열리는 목적을 이끄는 40일에 중보기도팀의 큰 역할을 기대하며 더욱 많은 교우들의 참석을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 첫 중보기도 월례회는 1월 6일 (화)요일에 열린다.

성극 '살로메' (12월 10일 수요일예배)



한 해 동안 받은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뻐던 일, 슬펐던 일, 괴로웠던 일, 모든 일들 힘들었지만 모두 받아들이고 모두 견뎌왔음을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은혜로운 체험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면서 오늘을

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로만 용서하고 마음으로 용서 못한 적이 많은 저희들 부족함이 부끄러워집니다.

말로만 기도하고 마음은 다른 곳을 헤매거나 일상의 삶 자체를 잊기도 했던 우리들 지금 다시 생각을 합니다.

섬김과 나눔의 삶을 부르짖으면서도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날들을 뉘우칩니다.

12월10일 수요일예배에 성극팀에서 "살로메" 연극을 공연합니다. 8월 말부터 기획을 하고 많은 연습을 하였습니다.

열매 없는 삶보다 더욱 알곡이 되는 삶을 위해 인욕과 탐욕스런 세상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2008년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를 기원합니다.

함줄함을 기자모집

함줄함에서는 작지만 하나님을 위해 쓰여질 열정을 가진 교우님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사역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문의. 신형섭안수집사 019.628.7957

직거래 장터 풍경

지난 11월 22일 오전 10시 정신여고 운동장에서 농어촌 협력교회를 돕기위한 직거래장터가 열렸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임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사진설명. ① 따뜻한 차 드시고 구경하세요 ② 맛보고 사세요! 제일먼저 품절된 썬떡 ③ 청정멸치의 맛은 어떤가? 물품 구입전 꼼꼼히 살피시는 어르신 ④ 장터구경도 식후경 ⑤ 돌아가는길 어깨에 짐이 한가득 풍성한 마음도 한가득

주님의교회 성도님들께

행사를 무사히 마치고 해주시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님의 교회 선교사역부에서 11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3시까지 실시한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는 모두 주님께

서 준비한 행사였다고 생각 됩니다.

주님의 교회 목사님들과 온 성도분들이

일사불란하게 봉사하시는 모습을 볼 때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기쁘고, 평화로운 모습, 친절한 배려 과연 주님의교회였습니다.

특히 행사를 보며 본받을점이 많았는데 첫째 외면적 시설도 모두 갖추었지만 내면적 신앙생활에 더 비중을 두는것 같고

둘째 권위적 체계가 아니라 직능별 조직 체계라는 것이며 셋째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행하는데 교파를 초월하여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농어촌 교회 성도들은 자식들에게 먹이려고 농산물을 재배하듯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유기농 농산물을 물론 기능

적 농산물 (썬,뽕나무 오디,뽕잎차, 모싯잎)을 재배하여 준비 해 놓겠습니다. 주님의교회와 사감이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주님의교회 박원호 담임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8년 11월 26일 함평농어촌 선교회

윤기성 올림

|오늘의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 22:20

통 권 _ 제 241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08년 12월 7일

함즐함울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주여! 어서 오소서!!

대림절 특별새벽기도회 성황리에 봉헌



주님의교회 2008 대림절 특별새벽기도회가 지난 1(월)일부터 6(토)일까지 성황리에 봉헌되었다. 이번 특새(특별새벽기도)는 “주님 오심을 예비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박원호 담임 목사의 설교로 6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특별히 각 교구별로 준비된 새벽특송은 참석한 성도들의 심금을 울렸으며, 본당을 가득 채운 성도들이 한해를 마무리하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모습은 은혜를 느끼기에 충분했다.

둘째날 설교에서 목사님은 “기독교 교회사

에서 놀랄만한 사건중의 하나는 아마도 한국 교회의 특새”라고 평가하며 가슴에 묻어둔 주옥같은 말씀을 쏟아내었다.

목사님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전에 세례요한을 보내 시어 어둠과 추운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메세아를 기다리게 했다”며 “성도여러분에게도 지금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이는 필시 예수님의 빛인 메세아가 곧 임재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하며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라”고 당부했다.

하태원 기자

로템나무

무엇을 기다리는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3:20)

오래전에 선물로 받은 조각품이 있다.
야광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새겼다.
환한 대낮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깜깜한 밤이 되어서야 빛을 발한다.
예수님이 선명하고 환하게 보인다.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얼굴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다.
이 세상의 소망이 다 꺾어졌을 때에야,
비로소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나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것인가.
그토록 내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

여전히 나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린다.
대림절에 이러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신다.
얼마나 내가 세상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요일2:15)

길가에교회 창립3주년 감사예배 -2008. 12.7. 오후2시 길가에교회 대예배실(여호수아홀)에서 열려

주님의교회에서 분가한 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3주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인도하셔서 우리의 교회를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우리의 가슴은 여전히 뛰고있습니다. 2008년 12월 7일 주일 오후2시 길가에교회 대예배실(여호수아홀)에

서 창립 3주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주시고 오셔서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되길 바랍니다. 박혜경 전도사



※12단계 성경공부 (3단계) 신청

12단계 성경공부(3단계)가 2009년 1월 7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기간은 12월 7일, 14일 2주간 1층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받습니다.

주최: 주님의교회 20주년기념사업회 후원:

주님의교회 20주년 CCM CONCERT

크리스마스선물

2008.12.16(화) 7:30(pm)

주님의교회 대예배실

출연진:
July(함춘호/이세준), 남궁송옥
황영자/박상은(국악), Soul Singers

담임목사 주일설교	2면
구역 소그룹 업그레이드	3면
교회소식	4면
직거래장터 풍경	4면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후서 4: 9-13

오늘 본문은 바울이 삶의 마지막 눈앞에 다가온 것을 알고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여러 일들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4장 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유명한 신앙 고백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대하면서 우리는 참으로 성도로서의 영광스러움을 느낍니다. 이제 자신의 삶을 다 마치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렸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을 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믿음의 삶이요 사명의 삶입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겨울은 당연히 이제 곧 바울에게 다가올 삶의 마지막을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겨울은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의 시간이요, 완성의 시간입니다. 이미 바울의 고백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나아가 성도에게 겨울은 마지막이 아니라 참된 안식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요 새로운 생명의 봄을 기다리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인간관계를 통한 영적인 성숙

언젠가 사명을 다 마칠 때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우리를 영광의 천국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서두름이 있습니다. 이는 결코 조바심으로서가 아니라 더 온전케 하려는 기쁨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제 바울은 무엇을 서둘러 마무리해야 하나? 바울은 자기 삶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자기의 삶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마지막까지 달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 관계에서 보여지는 바울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인간관계를 통한 영적인 성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들을 하나 하나 언급하는 것은 바로 이를 말합니다. 결코 편지의 마지막에 추신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들은 모두가 좋은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고 자기를 대적인 사람들이고 자기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차라리 언급하기 싫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언급하는 바울의 모습에서 조금도 분노도, 속상함도 느낄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담담하게 이들을 말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향한 바울의 안타까움과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된다는 것이 무엇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영적인 성숙과 완성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인간적으로 무척이나 실망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자기도 버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들을 여전히 품고 있고 여전히 소망으로 대하고 있고 여전히 사랑으로 대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싸움의 한 복판에 교회가 있고 싸움의 한 복판에 목사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런 관계를 가지지 않고서는 결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과정은 우리가 피할 것도 아니고 잊을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성숙의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관계의 어려움들을 영적 성숙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교회 안에는 문제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교회의 영적인 성숙과 능력이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인간의 관계를 너무나 소중한 여깁니다. 그 관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성숙되는 통로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딴 섬에 두지 않습니다. 비록 인간 관계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곳이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성령께서는 관계 속에서, 우리를 성숙시키시기 때문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영적인 성숙은 인간 관계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싸움의 한 복판에 서서

기독교의 사랑은 인간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기독교의 화평도, 인간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기독교의 인내도 인간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자비도, 양성도, 온유도, 절제도 모두가 인간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속세를 떠나서도 안 되고 사람들을 떠나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함께 해야 합니다. 아니, 힘들수록 더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곳이 우리의 영성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딴 섬에 두지 않습니다. 비록 인간 관계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나 이곳이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들어온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성령께서는 이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숙시키시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때로는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고

이기 때문입니다. 맨 먼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이 관계는 인간 사회의 근본 관계일 뿐만 아니라 영적 성숙의 핵심입니다. 부모로서는 마땅히 영적인 성숙을 통해서 자녀들을 키워야 합니다. 자녀들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부모만큼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울러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합니다. 무엇보다 부모들은 바른 사랑으로 자식을 대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식에게 담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발 자식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에게는 자식만이 가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체면을 세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제발 자기 자식을 남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애 먹이는 자식, 공부 못하는 자식을 키우는 재미도, 보통 큰 것 아닙니다. 하지만 저 자식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다음으로 성경은 부부의 관계를 중시합니다. 어떤 면에서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영적 성숙의 모습은 부부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곧 두 사람의 영적 성숙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부부를 향해 하나 됨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부의 관

계는 하나 됨의 관계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대한 헌신 없이는 영적인 성숙 없이는 가능치 않습니다. 기도로 이겨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부부에게 각각 부탁하는 핵심적인 말이 있습니다. 먼저 부인에게 말합니다. 잠언 21: 9절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리라." 다투는 성격은 남편에게 끊임없는 고통입니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하와의 전매 특허입니다. 남편에 대해서도 말하기를 부인을 아름다운 동반자로 여겨야 합니다. 31장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행할 모습을 말합니다. 부인을 믿어야 하고, 칭찬해야 하며, 찬양해야함을 말합니다. 31장 28절입니다.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사례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결혼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칭찬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 칭찬을 통해서, 서로의 가능성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이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 오늘날 쾌락이나 외모 중심의 가치관은 결코 지혜롭지 못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잠언 31장 30절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친구 관계는 어떠합니까? 친구 관계도 우리를 영적 성숙으로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영적 침체로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진정한 친구 관계는 의로운 관계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친구 관계는 영적으로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깊은 공통점을 가져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같은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바로 이를 대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으로 다가오시고 인격으로 만나주시고 인격과 인격의 만남 속에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관계들은 우리에게 주신 영적 성숙의 기회들을 잊지 마십시오. 성도들은 인간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박원호 담임목사

“도약”을 향한 힘찬 첫 걸음 *Up-grade*

구역 소그룹 업그레이드!



올해로 창립 20주년 을 맞은 주님의교회는 “도약”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20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시간을 주님께서 인도하셨듯이 앞으로의 미래도 주님께도 인도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극심한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러한 상황가운데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로 교회되게 하라”(Let the church be the church)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면 교회는 다시 성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곧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말은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의 나타난 교회는 당연히 역동적인 소그룹으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주님의교회도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앙의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그런 의미에서 구역소그룹 업그레이드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의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전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일정과 홍보는 주일 예배시간 담임목사님의 설교와 구두 광고 및 주보 간지를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1. 구역소그룹 업 그레이드(Up Grade) 목적과 방향

● 소그룹을 통한 성경적인 교회로의 회복 - 전 세계적인 현상

21세기를 맞은 전 세계의 화두는 소그룹입니다. 성경성장학에 보면 ‘두 날개를 가진 교회’ 신학이 있다. 새가 두 날개 모두가 있을 때 활기차게 하늘을 비상할 수 있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는 ‘전체 회중으로서의 큰 교회’와 ‘소그룹 사역으로서의 작은 교회’가 모두 필요하다. 구역과 같은 소그룹 사역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번식해나가지 않는 교회는 한 쪽 날개를 잃어버린 새와 같습니다. 한 쪽 날개를 잃어버린 새는 높이 날 수가 없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는 모두 전인적인 소그룹을 가진 교회들입니다. 전인적인 소그룹이란 적어도 교회 멤버의 3분의 2 이상이 소그룹에 참여하며 소그룹 뿐만 아니라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주님의교회의 현실과 앞으로의 방향

한국교회의 소그룹 현황을 보면 일반적으로 교회구성원의 25~30%정도만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70~75%되는 성도들은 전혀 소그룹에 참석하지도 않고 교회의 각종 사역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바야흐로 창립 20주년 맞이한 주님의교회는 ‘도약’을 주제를 가지고 21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약’을 위한 준비로 담임목사님의 목회방침에 따라 2009년 사순절 기간에 ‘목적이 이끄는 40일’이라는 영적인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하여 교회가 구역소그룹(겨자씨)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역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40일 기간 동안, 구역지도자들이 가장 마음과 기도를 모아야 할 사역은 소그룹(겨자씨)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구역소그룹(겨자씨)을 통하여 예배와 교제와 훈련과 사역과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구역소그룹(겨자씨)을 아래와 같이 Up-Grade 할 것입니다.



2. 구역소그룹 업그레이드(Up-grade)을 위한 방법

● 기본지침

- 모든 성도들을 구역소그룹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향존직분자들(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은 소그룹 장소제공자로 헌신해 주십시오.

● 소그룹 장소제공자란?

- 소그룹 장소제공자는 단순히 장소제공자입니다. 성경공부를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 장소만 제공 해 주면 됩니다.
- 커피 한잔만 준비하고 조금만 친절하면 된다.(식사준비 하면 안됩니다 - 반칙)
- 그 주에 해당하는 주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 준비된 담임목사님의 비디오 테잎, 또는 DVD를 보면서 함께 공부한 후 서로 적용하고 삶을 나누면 됩니다.

● 기존 구역 업 그레이드(Up grade)

- 목적이 이끄는 40일 위한 준비로 구역소그룹을 위한 준비단계로 편성합니다.
- 구역원 수: 역동적인 소그룹 환경에 적합하게 합니다.
- 최적의 소그룹에 적합한 수: 8-12명, 적어도 최소 4명이상, 최대 15명 이하로 합니다.
- 향존직분자(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은 소그룹 장소제공자로 세웁니다.

●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 기간 동안 구역소그룹 편성

- 기존구역 업그레이드가 끝나면 그 자료를 토대로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 소그룹팀에서 전 교인을 대상으로 소그룹장소제공자를 모집합니다.
- 구역소그룹(겨자씨)에 속하지 않거나 소그룹장소제공자가 없는 관리구역을 대상으로 소그룹을 편성하고 장소제공자를 연결하는 사역을 계속 합니다.
-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 기간 동안 구역소그룹(겨자씨) 모임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이후에도 지속합니다.